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국방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방발전전략 《자위-2021》 개막식에서 하신 기념연설에서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넓은 최종대정책이고 목표이며 드립없는 의지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방발전전략 《자위-2021》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하신 기념연설에서 최근시기 남조선과 미국의 위협하고 이중적인 언동들에 대해 분석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의 자위적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것이라는것, 그러나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끌고들지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않는다면 정당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는데 대해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기념연설에서 공화국은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제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이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의 주권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라는데 대해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시것처럼 공화국의 국방력강화는 국가와 인민의 생명을 보위하고 전쟁을 막으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자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기념연설에서 공화국은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제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이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의 주권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라는데 대해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기념연설에서 공화국은 누구와의 전쟁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말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쟁억제력과 남조선이 말하는 대북억제력은 어휘와 뜻과 본질이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의 주권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라는데 대해 천명하시였다.

민족자주, 통일애국의 기치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을 위한 애국업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기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로동자 5.1절통일대회 (2004년 5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민족의 삶과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민족의 삶과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민족의 삶과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민족의 삶과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민족의 삶과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고 민족의 삶과 통일번영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통일을 불러

목사가 안긴 복락의 세계 (4)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김창준목사는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만나보신 자리에서 공화국에 남아 일하고싶다는 마음속 생각을 아뢰였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김창준목사는 인생말년에 남긴 유교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일시적인 동맹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걸어갈 민족의 성원으로 여기어 아무런 구별과 변심을 모르는 고결함, 의리인 동지적사랑으로 굳게 믿어주고 품어주는 진실한 애국자들이다.

진실을 가리우려는 손이 제 눈을 찌른다

최근 박근혜 《정권》 시가 보수패당의 《총복》소통회생물로 전 제판소)와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탄압이 부당했기였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권》 시가 보수패당의 《총복》소통회생물로 전 제판소)와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탄압이 부당했기였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권》 시가 보수패당의 《총복》소통회생물로 전 제판소)와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탄압이 부당했기였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권》 시가 보수패당의 《총복》소통회생물로 전 제판소)와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탄압이 부당했기였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권》 시가 보수패당의 《총복》소통회생물로 전 제판소)와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탄압이 부당했기였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다.